



보도시점 2026. 7. 3.(금) 배포 2026. 7. 3.(금), 15:00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은민수 원장 AI 실습 교육 직접 참여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디지털 전환 시대, 보건복지 현장 맞춤형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역량 집중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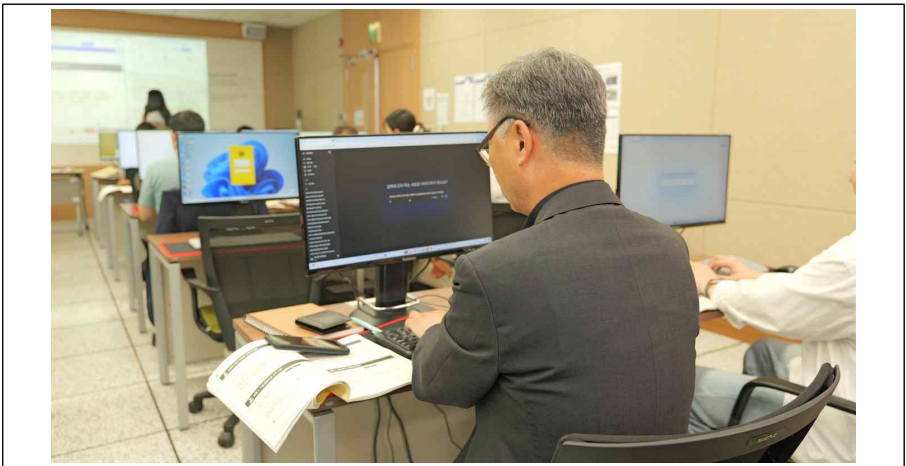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 이하 인재원)은 지난 3일(금), 보건복지 현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보건복지 공공 종사자 대상 ‘인공지능(AI) 도구 활용과정’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생들과의 현장 맞춤형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보건복지 종사자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실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은민수 원장을 비롯해 김홍장 상임이사 등 경영진이 직접 참석하여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 품질 고도화를 위한 소통에 나섰다.
- 특히 은민수 원장은 교육생들과 함께 AI 실습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보건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을 몸소 체감하고, 종사자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이어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 은 원장은 다양한 직군의 복지 현장 종사자들로부터 AI 교육에 대한 건의사항과 실제 실무 적용 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은 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

소리가 교육 콘텐츠에 즉각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한층 더 정교한 현장 맞춤형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은민수 원장은 “보건복지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인재원은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지능형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AI 시대에 다양한 분야의 보건복지 전문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내실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한편, 인재원은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계기로 보건복지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과정 및 실습 환경 도입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현업 적용을 극대화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 전경 출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은민수 원장이 교육에 참여하여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담당 부서	대외홍보팀	책임자	팀 장	신현길	(043-710-9152)
		담당자	대 리	송기주	(043-710-9134)